



# 하루에 하나



2026.6.17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원/달러 환율

1,508.60원 (-6.90원)

### KOSPI

8,726.60 (+180.62, +2.11%)

### KOSDAQ

1,018.68 (-15.35, -1.48%)

### 국고채 10년 금리

4.110 (-0.00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 Global Asset Strategy

신흥국 전략      종전 합의 이후 인도 증시 전망 [김근아]

해외채권      [6월 BOJ] 물가 상방 리스크에 초점 [허성우]

주간 강테마      메모리: LTA 니가 좋아 [강윤형]

### 기업분석

DN오토모티브      숨은 가치의 재발견: DN솔루션즈, 이제 온전히 담긴다 [송선재]

### 산업분석

유통      백화점 3사 사업구조 개선 효과 클 듯 [박중대]

유틸리티      4월 전력통계월보: 3개월 연속 전력판매금액 감소 [유재선]

### Weekly

제약/바이오      이벤트 비수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중요 [김선아]

### 글로벌리서치

노키아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신의 한수 [김홍식]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SDI, 대한항공, 대덕전자, HD건설기계, 오리온, 한국콜마, SGC에너지, 테스, 에치에프알

2026년 6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 인도

# 신흥국 전략

## 중전 합의 이후 인도 증시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급락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서명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인도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대에서 8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간 고유가 국면은 경상수지 악화, 루피화 약세, 물가 부담을 동시에 자극하며 인도 경제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유가 상승은 인도 증시의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했던 내수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높였고, 루피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지연시키며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기대는 인도 증시에 분명한 호재로 평가된다. 실제로 인도 NIFTY5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시사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 인도 증시에 호재는 맞으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다만, 종전 합의만으로 인도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원유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유가 역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에 되돌아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고유가 국면에서 부각됐던 우려들이 당분간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인도 증시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측면의 경계심은 여전히 높다. 5월 WPI는 YoY +9.7%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은 4월 +24.9%에서 5월 +30.3%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도매 단계에서 누적된 비용 압력이 시차를 두고 소매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급락에도 물가 부담 완화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급 측면에서도 유가 급락과 루피화 안정 기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후 글로벌 자금이 시·반도체 등 성장주로 재차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인도 증시는 해당 테마에 대한 직접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적으로 신흥국 내 자산배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단기 반등 폭은 제한될 가능성,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

종합하면 이번 이슈는 인도 증시의 단기 반등 요인이다. 다만 원유 공급망 정상화까지의 시차, 도매물가를 중심으로 누적된 비용 압력, 외국인 자금의 시·반도체 테마 쏠림 등을 감안하면 반등 폭은 제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견조한 펀더멘털이 확인될 경우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바탕으로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은 재차 부각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6월 17일 | Global Fixed Income

## Fixed Income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해외채권

## [6월 BOJ] 물가 상방 리스크에 초점

- 6월 BOJ, 정책금리 1.00%로 25bp 인상. 동결 소수의견은 아사다 위원 1명
- 다소 매파적인 성명서 확인하며 10년물 금리는 6bp 넘게 상승.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시장에 큰 영향 없었음. 우치다 부총재의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
- 하반기 두 차례 인상 전망 유지. 7월 동결 후 9월 인상 전망. 10년물 금리 상단 3.0%

### 6월 BOJ 리뷰

6월 일본 BOJ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1.00%로 25bp 인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말 임기가 만료된 노구치 아사히 위원의 후임으로 합류한 아사다 도이치로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중동 정세 영향과 관련해 물가 상방 리스크보다는 생산과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성명서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10년물 금리는 6bp 넘게 급등했다. BOJ가 지난 4월과 달리 경제 하방 리스크보다 물가 상방 리스크에 당분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유가 충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었고, 원자재 대체 공급원 확보에 진전을 보이면서 급격한 경제 둔화 위험은 비교적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유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비용 전가가 기업 간 거래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 인플레이션도 하반기 중 목표치 2%를 상회해 이탈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국채 매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테이퍼링의 종착지를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대로 2027년 3월까지 매 분기마다 월간 매입 금액을 0.2조 엔씩 줄여나간 뒤, 4월부터는 매입 규모를 2조 엔으로 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테이퍼링을 중단하겠다는 시그널이다. BOJ가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한 재투자를 중단하고 상환을 통해서도 보유 규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매입 계획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는 중간 평가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매 회의 때마다 시장과 BOJ 사이에서 발생하던 국채 매입 관련 눈치싸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월간 매입액과 상환액을 감안하면 현재 533조 엔인 국채 보유액은 내년 3월까지 약 10% 감소한 480조 엔, 2028년 말에는 약 18% 감소한 430~440조 엔 수준으로 줄어들며, 이후 2029년 말 390~400조 엔, 2030년 말 350~370조 엔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6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 Equity

## 주간 강테마(신고가로 보는 글로벌 테마)

## 메모리: LTA 니가 좋아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간 테마 리뷰: 방어주와 AI\_매크로에 따른 테마 공수 교대

지난주 매크로 환경에 따라 방어주와 AI 밸류체인 간 테마 순환매가 나타났다. 금리 인상 우려부터 중등 전쟁 우려 확대 시 방어주, 우려 완화 및 해소 시 기술주 중심으로 순환매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0일 CPI 발표 이전에는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리츠 등 방어주 중심으로 신고가가 등장했다. 당시 주요 지수 평균 수익률이 -3.88% 하락한 반면 방어주 평균 수익률은 +5.81%로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수익률 상위 기업들을 주로 소비재 기업들로 Casey's General Stores, J.M.Smucker는 어닝 서프라이즈, 백화점주는 자산 상승 효과와 외국인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방어주 투심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CPI 발표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AI 밸류체인 테마가 빠르게 반등했다. 반도체 CapEx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주가 평균 +28.7% 상승했다. 신고가 전반이 전공정 장비주로 구성됐으나 후공정 장비주가 새로 등장했다.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TC 분더 발주 소식에 후공정 설비 투자 본격화 기대감이 신고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 주간 테마 전망: 메모리\_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대감 유효

이번주 주목 테마로 메모리 테마를 제시한다.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 중등 전쟁 종전 협상 합의 소식에 시장은 실적 모멘텀에 주목할 것으로 기대한다. 6월에 하락했던 반도체 업종이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에 빠르게 반등하고 신고가 재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25일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을 계기로 메모리 테마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장기공급계약 SCA/LTA이다. LTA는 과거 단순 물량 계약에서 AI 슈퍼사이클에서 장기, 고정 물량, 부분 고정 가격 등 구조로 진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월 Sandisk가 분기별 가격 협상 중심에서 LTA로 비즈니스 구조 개편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리레이팅 논리가 부각됐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메모리 업종이 상대적 매력이 크다. 반도체 주요 업종 중 메모리는 이익 추정치가 가장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음에도 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CPU, 아날로그 반도체, GPU/ASIC, 반도체 장비 업종은 주가 변화율이 EPS, PER 변화율을 평균 +19%p 상회하고 있지만 메모리만 -80.8%p를 기록하면서 실적 상향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alyst 강윤형 kangyh@hanafn.com

2026년 06월 17일 | 기업분석

## BUY (신규)

목표주가(12M) 60,000원  
현재주가(6.16) 44,6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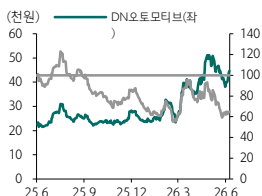
### Key Data

KOSPI 지수 (pt)	8,726.60
52주 최고/최저(원)	51,200/21,550
시가총액(십억원)	2,612.5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58,510.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94.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4
외국인지분율(%)	6.33
주요주주 지분율(%)	
감상헌 외 5인	52.16
국민연금공단	5.14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431.1	4,673.1
영업이익(십억원)	544.3	665.1
순이익(십억원)	324.1	409.8
EPS(원)	4,985	6,305
BPS(원)	43,982	50,485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434.5	3,675.7	4,406.0	4,647.0
영업이익	522.9	527.9	599.6	634.8
세전이익	421.8	443.4	523.7	557.8
순이익	284.9	281.6	334.9	358.6
EPS	5,383	4,809	5,724	6,128
증감율	(2.11)	(10.66)	19.03	7.06
PER	3.41	5.07	7.66	7.16
PBR	0.61	0.70	1.08	0.95
EV/EBITDA	4.99	5.52	6.29	5.54
ROE	19.78	15.02	15.41	14.29
BPS	30,093	34,750	40,425	46,228
DPS	1,000	1,000	1,100	1,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 DN오토모티브 (007340)

## 숨은 가치의 재발견: DN솔루션즈, 이제 온전히 담긴다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0만원 제시

DN오토모티브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0만원(목표 P/E 10.5배)을 제시한다. 투자 포인트는, (1) 핵심 자회사인 DN솔루션즈의 기업가치가 전방 수요 개선과 최근 인수한 Heller와의 시너지를 통해 꾸준히 상승하고, (2) DN솔루션즈의 중복성장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그 기업가치 상승이 DN오토모티브로 온전히 반영될 것이며, (3) 본업인 방진부품, 튜브 및 축전지 사업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동시에 증설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 시가총액은 SOTP 방식으로 산출한 3.53조원이다. (1) 영업가치는 자동차 부문과 공작기계 부문에 글로벌 Peers(각각 P/E 10.9배, 20.7배) 대비 평균 30% 할인된 Multiple을 적용하여 자동차 0.82조원(목표 P/E 7.6배), 공작기계 4.35조원(목표 P/E 14.5배) 등 총 5.18조원을 반영하고, (2) 순차입금 1.65조원을 차감하였다. 이는 순차입금 차감 후 전자 기준 2026년 추정 EPS 대비 P/E 10.5배 수준이다. 현재 주가는 P/E 7배에 불과하여 글로벌 공작기계 업체들의 P/E 14~27배 대비 가장 낮은 Valuation을 기록하고 있다.

### 공작기계 부문: 고수익 구조에 '업황 개선과 수요 다변화', 그리고 Heller 턴어라운드

DN오토모티브의 연결 법인인 DN솔루션즈는 저고정비 구조와 다변화된 지역/산업 믹스를 기반으로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고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vs. 일본 4개사 평균 7%). 2025년 이후 외형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공작기계 업황 사이클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특히 DN솔루션즈가 강점을 가진 미주 지역에서 매출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 변화도 감지된다. 수요 산업이 자동차에서 정밀 가공을 요하는 우주항공/방산/로봇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성장성과 안정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인수한 독일 Heller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 Heller의 최근 적자는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높은 고정비 구조에 비해 외형이 축소된 영향인데, 구조조정과 유상증자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낮췄고, DN솔루션즈와의 시너지로 매출액이 회복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로는 흑자 전환 전까지 연결 마진 희석이 불가피하나, 이는 중기 업사이드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한다.

### 자동차 부품 부문: 방진부품은 수주 회복, 축전지는 증설 효과를 기대

자동차 부품 부문도 역시 견조한 성장세다. 방진부품(VMS)은 글로벌 3위의 지위 속 SUV 및 전기차 전환에 따른 ASP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 완성차들로부터의 발주 회복으로 신규 수주가 21% 늘며 2026년 매출액이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전지(BTS)는 관세 및 경쟁 심화로 단기 부진하지만, 울산 증설(2026년)과 부산 신공장(2030년)이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며 성장 여력이 크다. 튜브는 글로벌 2위 지위와 원재료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10%대 수익성을 유지하는 Cash Cow다. 즉 자동차 부품 사업도 수주 회복, 생산능력 확대,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이 동시에 작동하며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 산업분석\_Brief

## Overweight

# 유통

## 백화점 3사 사업구조 개선 효과 클 듯

### 백화점 3사 사업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 10% 증가 효과

2026년 백화점 3사는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한 주가 모멘텀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익 개선은 주식/부동산/임금상승 등에 의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 부분과 외국인 인바운드에 의한 신규 수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선 효과 또한 적지 않다. 2026년 백화점 3사 연결 영업이익 예상 증가율이 39%(컨센서스 기준)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10%p는 사업구조조정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한다.

### 롯데쇼핑: 저효율점포 스크랩 등으로 영업이익 5% 증가 효과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에서 마산점과 분당점 등 저효율 점포를 연간 한개씩 스크랩하고 있는데, 올해도 연간 50억원 정도 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커머스(롯데온) 사업 역시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였다. 고정비 축소, 카테고리 믹스 개선, 광고 수익 고도화로 영업적자 규모는 '25년 29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 고정비 절감에 의한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부문들이 있다. 대형마트는 백화점/슈퍼와 통합소싱으로 매출총이익을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 홈쇼핑은 연간 3,600억원에 달하는 송출수수료가 2025년부터 정제되면서 증익 폭이 커지고 있다. 컬처웍스는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영화 시장 회복 영향 가파른 이익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식품 온라인 사업 '제타' 출시 영향으로 하반기 영업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롯데온 연간 영업손실 YoY +150억원 예상).

### 신세계: 본점 리뉴얼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 16% 증가 효과

신세계는 사업구조 개선 효과로 연간 영업이익 750억원(YoY 16%)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본점 리뉴얼 기저효과가 크다. 전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본관 70% 공간에 대해 영업 중단 상태에서 리뉴얼을 실시했다. 전년도 11월에 오픈했고, 본점은 올해 6월까지 YoY 60% 매출 신장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연간 OP +350억원, 관리매출 기준 연간 +7천억원, OPM 5% 적용). 아울러, 면세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다. 연간 영업손실 500억원 이상을 기록하던 인천공항 DF2 영업을 4월 중단하였다.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2026년 6월 17일 | 산업분석\_Update

Neutral

##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16일

한국전력(051600)

Neutral | TP 45,000원 | CP 39,800원

## 유틸리티

## 4월 전력통계월보: 3개월 연속 전력판매금액 감소

## 4월 전력판매량 YoY -0.9%, 전력판매금액 YoY -0.8%

4월 전력판매량은 42.7TWh로 전년대비 0.9% 감소, 전력판매금액은 6.8조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용도별 전력판매량은 주택용 +0.5%, 일반용 +1.3%, 산업용 -1.6%, 판매금액은 주택용 +0.6%, 일반용 +1.4%, 산업용 -1.7%를 기록했다. 전력판매단가는 주택용 +0.1%, 일반용 +0.2%, 산업용 -0.1%이고 평균 판매단가는 159.53원/kWh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0.1% 상승했다. 4월 중순부터 산업용(을) 요금 개편 영향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다른 용도의 계시별 요금 조정 영향은 6월 통계로 확인될 전망이다.

## 원전 이용률 전월대비 개선되며 기저발전 비중 소폭 상승

4월 발전량은 44.4TWh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유연탄 11.4TWh로 37.2% 증가, 원자력 13.6TWh로 14.6% 감소했다. 기저발전 비중은 56.4%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7%p 상승했다. 발전량으로 추정된 이용률은 원자력이 72.6%로 전년대비 12.4%p 하락, 유연탄은 39.6%로 10.8%p 상승했다. 유연탄 기여도가 원전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4월 초 고리 2호기 가동 재개 이후 원전 이용률은 70% 초반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계획예방정비 일정에 따르면 2분기 원전 이용률은 74% 수준으로 추정되며 하반기는 80% 초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구입전력량은 39.5TWh로 2.0% 감소, IPP+PPA는 17.0TWh로 3.4% 감소했다. 구입전력비는 5.0조원으로 3.0% 감소, IPP+PPA는 2.3조원으로 11.1% 감소했다. 구입단가는 126.10원/kWh으로 1.1% 하락, IPP+PPA는 135.96원/kWh으로 8.0% 하락했다. SMP와 IPP+PPA 구입단가 비율은 114.3%로 전년대비 4.3%p 하락했다.

## SMP보다 덜 오른 구입단가. 비용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만 방향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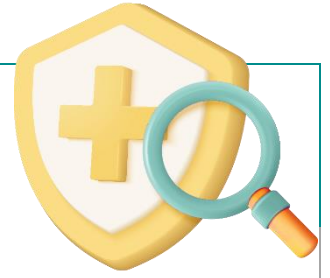
4월 평균 SMP는 118.92원/kWh으로 전월대비 8.1% 상승했다. 한편 정산단가는 126.1원/kWh으로 2.6% 올랐으며 외부 구입단가도 135.96원/kWh으로 4.1% 상승하는데 그쳤다. SMP 대비 정산단가 비율도 전년대비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2분기 구입전력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물론 아직 분기 전체를 가늠하기에 1달 통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기존 추정치를 변경할 수준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5월 이후 수치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이란 60일 휴전 MOU 체결로 WTI는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크게 하락했다. 8월물 JKM도 17달러/mmbtu를 하회하고 있으며 호주산 발전용 유연탄도 130달러/톤 수준으로 낮아졌다. 아직 최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 여지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의 원자재 가격과 환율을 적용하면 하반기 SMP에 대한 눈높이가 더 상향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에서 비용 절감으로의 추세 전환을 아직은 기대하기 이르다고 판단된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 (6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6월 17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 이벤트 비수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중요

### 1) 2026년 6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Bio USA 이후 학회 비수기 진입, 기업별 R&D 데이 확인** 파트너십 행사인 6월22일 Bio-USA가 지나면 학회도 여름 휴가 기간으로 들어간다. Bio-USA에서 성과를 얻은 기업들은 복귀 후 신규 파트너십이나 기술이전 공시를 띄워줄 가능성이 있겠으나, 3분기는 기술이전도 비수기이므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텨야 한다 (5/21 발간 리포트, 도표 10번 참고). 따라서 7월에 R&D 데이 예정인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확인된 바로는 리가캠바이오, 올릭스 등이 R&D 데이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약품도 8월경 R&D 데이를 개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는 미정이다. 이러한 비수기에는 각 기업별 하반기 이벤트를 체크하고, 개발 현황과 경쟁사, 신규 기술 동향 등을 스타디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반기 대형 학회는 9월 WCLC(세계폐암학회), EASD(유럽당뇨병학회)부터 시작되는데, 최근 폐암 파이프라인 또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만큼 높지는 않은 분위기라, 10월 ESMO(유럽종양학회)를 주목하고 있다. ESMO는 정규 초록 제출은 마감되었고,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Late-breaking abstract 제출 기간은 9월 8일, 수령 사전 통보가 9월 16일-18일 사이다. 따라서 ESMO 관련 기업에 대한 주가는 9월 중순 이후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 이벤트로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크게는 어떤 기업이 국민성장펀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따라 프리미엄공을 나누는 조건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비티젠(옛 에스티젠바이오)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두 기업 모두 CDMO를 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창출되면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보자면 알테오젠(hyaluronidase 자체 생산), 에스티팜(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 CDMO)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정책 펀드이므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순수 바이오텍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진입하여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는 기업이 투자 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총 상위권 중에는 리가캠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따른 프리미엄 등급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 기업을 배치하는데, 아직 개수와 조건이 불명확하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시행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7월1일 코스닥 30주년 행사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2026년 6월 추천 종목

- 6월 코스피 Top pick(유지): 한미약품** 희귀의약품인 단장중후군 치료제인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illy향 기술이전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경쟁사의 MASH P2 결과로 반합 우려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기술이전 공시일인 6/1 이후 시총 약 1.5조원 하락하여 과도하다. 한미약품이 연간 가이드نس로 “1건 이상의 L/O”를 내세운 만큼, 수요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수이고, 한 파이프라인 당 여러 잠재 파트너가 존재하고, term sheet이 논의된 정도로 성숙한 수준으로 계약이 논의 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 L/O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 6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변경), 올릭스(유지)** 1) 알테오젠은 Qlex의 WAC과 처방 수 성장세가 모두 관찰되어,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공개되는 시기에 동시에 코스닥 시장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CMS의 약가 인하 영향은 Qlex 로열티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일단락 정리되었다는 판단이다. 2) 올릭스도 로레알 계열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주가는 부진하다. 단순히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105억원 보다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그 작은 규모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그래서 더 기다려볼 가치가 크다.

2026년 6월 17일 | Global Equity

# 노키아(NOKIA FH)

##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신의 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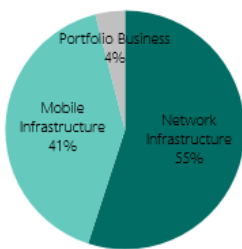
### 핀란드

TP(컨센서스) 10.77(EUR)  
CP(6.15) 12.54(EUR)

#### Key Data

국가	FINLAND		
상장거래소	Helsinki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통신 장비		
홈페이지	www.nokia.com		
시가총액(십억EUR)	72.0		
시가총액(조원)	126.1		
52주최고/최저(EUR)	14,995/3,41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	10.84		
블랙록	8.2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3	137.5	172.3
상대	3.6	126.9	146.8

#### 매출구성



####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9,220	19,889	20,821	21,646
영업이익	1,976	804	2,382	2,868
순이익	1,277	651	1,627	1,950
EPS(EUR)	0.4	0.2	0.3	0.4
EPS(YOY, %)	122.0	(36.6)	37.1	18.0
ROE(%)	6.2	3.1	7.7	8.8
PER(배)	13.8	46.4	37.0	31.3
PBR(배)	1.1	1.5	3.2	3.0
배당률(%)	3.3	2.5	1.2	1.3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 노키아 투자매력도 높음, 무선장비 수혜 감안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

노키아 투자매력도 높다고 판단한다. 1) 광통신 장비 수요가 급성장한 덕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당분간은 관련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고, 2) 연말 이후 미국 통신사향 무선장비 수주가 시작하며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3) 엔비디아가 RU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무선장비 생태계가 변화될텐데 2위 사업자이자 엔비디아 파트너사인 노키아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4)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PBR 3배 수준으로 미국내 유선/광 관련주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통신보다 시장이 훨씬 큰 무선장비 시장이 곧 개화할 것임을 감안하면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단 판단이다.

### 미국 주파수 경매 덕분에 노키아 실적 개선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의 서버 투자 덕분에 2026년 1분기 노키아 광통신 사업부 실적도 긍정적이다. 전사 매출이 전년비 2% 증가한 44.9억 유로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0.6억 유로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아무래도 광통신장비 매출이 전년비 20% 급성장한 8.2억유로를 달성한 덕이다. 그런데 올해 4분기 이후 노키아 실적 개선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키아의 제품별, 고객사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그렇다. AI 서버 성장이 가파르다지만 노키아 전체 매출에서 빅테크 서버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7% 남짓이다. 매출의 73%를 차지하는 통신사향 매출은 오히려 전년비 2% 감소했고, 그 탓에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지국 장비 매출 성장도 정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통신 수요가 급성장한 덕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광통신 수요는 당분간 견조할테니, 주파수 경매로 인한 북미 통신사향 매출까지 감안하면 연말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광통신 매출이 8.2억 유로이고 경매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 무선향 매출이 총합 약 22억 유로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광통신발 이익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로 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 엔비디아의 RU 시장 진출, 노키아와 국내 벤더사에 수혜로 작용

특히 노키아가 엔비디아와 AI RAN 파트너십을 맺은 점도 긍정적이다. AT&T가 2023년 기존 노키아 장비를 에릭슨 장비로 교체한 탓에 2위 사업자인 노키아의 미국내 입지가 약화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무선장비 생태계가 격변 중인 만큼 노키아가 전세를 역전할 바탕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우선, 에릭슨의 CPU 기반 RAN과 엔비디아-노키아의 GPU 기반 RAN으로 표준 경쟁이 진행중인데, 피지컬 AI와 엣지컴퓨팅을 감안시 GPU 기반 AI RAN이 다소 유리할 수 있겠다. 또한 엔비디아가 RU 산업에 진출했는데, 이해관계상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유선장비와 달리 미국내 자체 무선장비 업체가 사실상 전멸한 상황에서 RU 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파트너십을 맺은 노키아 및 관련 벤더사에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적으로 RU 관련 부품 입지가 큰 국내 통신장비업체에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5	322,500	343,000	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삼성SDI (006400.KS)	6/15	539,000	549,000	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센터향 BBU/ESS 증가와 유럽 EV 배터리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li> <li>StarPlus Energy를 활용한 현지 생산, LFP 라인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li> </ul>
대한항공 (003490.KS)	6/15	26,600	29,300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li> <li>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li> </ul>
대덕전자 (353200.KS)	6/15	165,200	169,900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향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li> <li>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li> </ul>
HD건설기계 (267270.KS)	6/15	142,600	154,600	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 이후 사업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며 외형과 수익성 동반 개선</li> <li>인프라 투자, 선진시장 수요 회복, 산업·방산용 엔진 성장으로 중장기 이익 체력 강화</li> </ul>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134,000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li> <li>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li> </ul>
한국콜마 (161890.KS)	6/15	86,400	85,700	-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풍기·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li> <li>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li> </ul>
SGC에너지 (005090.KS)	6/15	58,400	56,500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전·건설 부문 수익성 개선과 SMP 상승, REC 판매 확대가 맞물리며 영업이익 회복세</li> <li>친환경 발전과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li> </ul>
테스 (095610.KQ)	6/15	182,200	169,200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li> <li>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li> </ul>
에치에프알 (230240.KQ)	6/15	26,400	25,850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li> <li>AT&amp;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li> </ul>

##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56%	-5.75%p	+82.08%	+2.3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15	385,500	431,000	1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li> <li>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li> </ul>
신세계 (004170.KS)	6/15	695,000	767,000	10.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li> <li>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li> </ul>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134,000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li> <li>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li> </ul>
테스 (095610.KQ)	6/15	182,200	169,200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li> <li>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li> </ul>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2,048,000	5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li> <li>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li> </ul>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18,000	1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li> <li>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382,000	13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43,000	10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90,000	1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li> <li>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li> </ul>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236,000	3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li> <li>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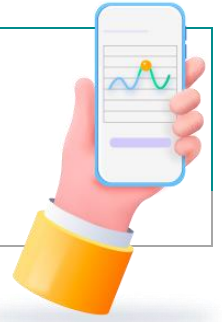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6.29%	-21.76%p	+59.70%	-19.9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026.02.27	29,560	54,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li> <li>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li> </ul>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2026.02.24	15,160	13,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li> <li>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li> </ul>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026.02.24	25,365	36,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li> <li>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li> </ul>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2025.03.04	13,000	18,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li> <li>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li> </ul>

##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2025.11.24	339.12	64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li> <li>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li> </ul>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2026.03.23	75.80	8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amp;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li> <li>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li> </ul>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2026.01.02	45.65	5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S&amp;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li> <li>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li> </ul>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2025.10.27	30.66	3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li> <li>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 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li> </ul>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35, 이전치 3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46.9%, 이전치 40.8%)</li> <li>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24.8%, 이전치 20.2%)</li> <li>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1.0%, 이전치 0.75%)</li> <li>중국 5월 광공업생산 (4.5%, 이전치 4.1%)</li> <li>중국 5월 실업률 (5.1%, 이전치 5.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li> <li>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li> <li>유로존 5월 CPI F (E --, 이전치 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3.75%, 이전치 3.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li> <li>일본 5월 CPI (E 1.5%, 이전치 1.4%)</li> </ul>	
6.21	6.22	6.23	6.24	6.25	6.26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로존 6월 소비자지대P (E --, 이전치 -1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li> <li>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li> <li>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li> <li>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6.2%)</li> <li>미국 5월 건축허가 F (E --, 이전치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5월 PCE (E --, 이전치 3.8%)</li> <li>미국 5월 근원 PCE (E --, 이전치 3.3%)</li> <li>미국 5월 내구재 주문 P (E --, 이전치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4%)</li> <li>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 자실리지수 (E --, 이전치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24.7%)</li> </ul>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